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김병재 (ByoungJae Kim)**

ABSTRACT

Meritocracy is deeply ingrained in our lives and social structures. People and education are subconsciously imbued with meritocracy. Meritocracy, which leads to rationalization of results based on individual efforts and abilities, has a negative effect on education. The Christian faith is responsible for Christian analysis of the culture that dominates the present and suggests alternative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and meritocracy,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spirit of the times. Furtherm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Christian education by revealing the 'exam culture', 'cognitive learning-centered', 'individualism', 'performanceism', and 'difficulty of class movement through education' that appeared in education due to meritocracy. In particular, starting with the concept of the body centered on the incarnation and humanity of Jesus Christ,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are presented. Next, 'community' and 'work' ar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career education' and 'curriculum'. Later, 'body' and 'blank' will be dealt with in general within the curriculum. In conclusion, consider the direction and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eritocracy culture.

Key words: Meritocracy, Incarnation, body, Christian education, work, career education

* 2021년 11월 15일 접수, 2022년 3월 2일 최종 수정, 3월 8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2021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학원 분과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충한 것이다.

**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Grace-Garden Christian School) 과학교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25번길 58, jupiter8115@gmail.com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비단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문화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2019, 2020년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2019년 3월, 예일, 스탠퍼드, UCLA 등 주요 명문대의 부정 입학이 드러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동원되어 수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https://edition.cnn.com/2019/03/12/us/college-admission-cheating-scheme/index.html>. 검색일 2022년 1월 15일), 2020년에는 유명 CEO의 자녀 부정입학도 밝혀졌다(<https://edition.cnn.com/2020/11/16/us/college-admissions-scam-harvard/index.html>. 검색일 2022년 1월 15).

이처럼 비슷한 사건과 관심,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일이 나라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유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능력주의(Meritocracy)’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데 능력주의는 사회는 물론, 특별히 교육에서 그 영향을 단단하게 드러낸다. 이런 흐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데,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는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의 성과중시는 교육의 과정 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입시’라는 구조로 표면화된다.

사실 그동안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세속적 관점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독교교육은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능력주의 전반 혹은 부분에 대해서 다뤄진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능력주의”와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논문은 전무했다(검색일 2022년 2월 27일). 하지만 능력주의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독교교육은 이에 대해 차근차근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음을 밝히고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몸 개념을 시작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중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능력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둘째, 능력주의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셋째, 기독교교육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의 비판적 대상이 되는 능력주의에 대해 사회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능력주의 문화

1. 능력주의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마이클 영(Michael D. Young, 1915-2002)은 1958년에 소설 하나를 발표한 다. 이 작품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58)는 장르상 소설이었지만 사회학자였던 저자의 세밀한 사회분석을 거쳐 저술되었다. 영은 이 책에서 개인의 ‘능력(지능+노력)’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그리면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다. 그가 묘사한 2034년의 미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서 충격을 가져다준다. 여기서는 능력주의와 능력주의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근대사회는 봉건시대의 혈통적 귀족제에 대한 저항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열망하게 하였다. 계층간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필요했다. 모든 개인에게 혈통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기회를 제공하되 그 결과는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능력주의다. 요약하자면, 능력주의 문화에서 노력은 개인에게 달렸으며, 결과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고, 실패와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계층 간 불평등에 의해 정당하게 제기된 능력주의는 결과인 불평등 또한 정당화하게 된다.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자는 능력이 있기에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예전엔 토지를 통해 계급이 형성되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기계를 통해, 업적을 통해 계급을 부여받는 것이다(Young, 유강은 역, 2020: 15). 영 또한 이런 지점을 간파했다. 영은 자신의 저술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혁명이란 없으며, 과거를 변형하면서도 재생산하는 중단 없는 변화가 서서히 누적될 뿐이라는 믿음이다 …중략… 재능 있는 이들은 자기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그런 변화에 따라 하층 계급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몫이 됐다(Young, 유강은 역, 2020: 27-29).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통해서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 능력주의는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뿐이다.

2.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영이 말한 바와 같이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 실패의 원인은 실패한 개인 자신의 몫이다. 마이클 샌델은 ‘실패한 개인 자신의 몫’을 ‘모욕’, ‘모멸’, ‘업신여김’이라고 표현한다. 성공한 자들로부터 받는 모욕은 능력주의로 인해 합리화 되고 자신은 업신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Sandel, 함규진 역, 2020: 13). 그렇게 하층계급이 느끼는 모멸, 실패가 엘리트층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이를 잘 이용하였다. 트럼프는 “불만과 증오”를 정치 도구로 삼았고 그의 전략은 통했다. 샌델은 이를 “노동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으로 본다(Sandel, 함규진 역, 2020: 309-310).

상층계급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고 느끼는 모멸감을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다보면 능력주의 문화가 제시하는 성공을 맞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붙인다.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이 상승한다면 이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이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등급에 따라 보상한다는 능력주의와 서로 상승효과를 이룬다. 현대 사회에서 ‘보상=돈’이라는 수식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과주의다.

시장경제는 생산성을 그 토대로 한다. 고로 사회 또한 무의식적으로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한병철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성과주의의 사회이며 이는 “할 수 있음”의 사회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25). 그래서 과거 규율사회가 부정성의 사회였던 것과 달리 현대의 성과주의 사회는 ‘할 수 있음’의 과잉긍정의 사회다. 이는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의 이상(理想)과 상통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그래서 능력주의 문화의 슬로건이다.

성과주의는 과거 규율적이고 의무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과 의무같은 ‘부정성’에서의 과도한 탈출은 주변 사람들 즉, 타자로부터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과잉긍정과 같이 과잉자유 또한 타자에게서의 자유에서 멈추지 않고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예 타자의 차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이 과잉자기관계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86). 흥미로운 건 이와 같은 개인중심적 관점이 또 다시 능력주의의 개인책임과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능력주의, 시장경제, 성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능력주의의 특징은 ‘노동의 가치 하락’을 지나 ‘인간의 존엄성 하락’을 야기한

다는 것이다. 사실 능력주의와 노동은 두 가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능력주의가 교육을 이용하여 사람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교육과 연관이 있기에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학력자들에게 보상을 많이 하는 능력주의 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http://wage.go.kr/newbbs012/newbbs012list.jsp#>. 검색일 2022년 1월 7일).¹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한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지만 학력(고졸, 전문대졸, 대졸)에 따른 임금 격차는 확연하다. 사업체 규모 기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경우, 고졸이 대졸 임금의 59%밖에 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20: .569). 학력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남성 노동자들을 조사했던 데이비드 오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상근직 남성의 실질적인 시간당 수입은 어디에서나 20-56% 증가했고 ... 중략 ... 고등학교나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남성들의 실질 수입은 상당히 하락했는데,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 22%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11%가 떨어졌다(Putnam, 정태식 역, 2016: 58).

능력주의와 노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 연관성도 있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능력주의는 시장경제, 성과주의와 상호 강화를 할 정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성과주의가 불러일으킨 노동의 가치 하락 또한 능력주의가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는 양산형 차종인 ‘Ford Model T’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1913년, 공장 내에 “어셈블리 라인(Assembly line)”을 설치한다. 이 어셈블리 라인은 생산성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Ford Model T’가 생산되는 시간이 10배 이상 단축되었으니 그 ‘효율성’은 말할 게 없다.

문제는 어셈블리 라인으로 인해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이 추상적이 됐다는 것이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동안 육체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의 처음과 끝을 통제했다. 전체 그림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았으며 모든 노동작업은 노동자 자신의 주체성에 의해 이뤄졌다. 즉, 모든 작업은 극히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어셈블리 라인은 그렇지 않았다.

1) 이 자료는 2017-2019년까지 3년간의 임금통계를 2020년 6월 기준 임금수준으로 변환한 결과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업장에서 정신적 노동은 사라지고 사라져야 했으며 최종산물의 전체 그림은 오직 사업주에게만 그려졌다. 노동자의 “통합적 행위”는 사라졌다(Crawford, 윤영호 역, 2018: 57).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에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사고, 장인(匠人)의 복잡한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 즉, 육체노동의 물리적 수행과 인지적 측면을 분리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Crawford, 윤영호 역, 2018: 46). 장인적 노동에서 작업공정의 일부만을 수행하게 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닌, 노동 자체를 팔게 되었다. 이들은 일과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임금 노예”가 되었다(Chomsky, 구미화 역, 2017: 146-147). 결론적으로 능력주의가 노동에 미친 영향은 전인적 인간의 이분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능력주의는 기존의 혈통적 귀족에 의한 계급을 뛰어넘지 못했다.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졌다. 시장경제의 생산성 중시는 능력주의를 통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개념을 바꾸어놓았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에 의해 ‘육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가장 큰 구조로 작용한 것은 ‘학력’이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교육’을 충실한 도구로 삼았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이 능력주의에 의해 어떻게 도구화되었는지, 능력주의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다.

III. 능력주의 문화 속의 교육

3. 시험문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의 개념은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려의 광종(925-975)은 문벌귀족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데, 바로 과거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혈통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보고 발탁하겠다는 인식은 당시 개혁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후로 과거시험은 조선을 관통하며 양반들의 삶에 필수적인 수험기간을,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문화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의 내신제도와 같은 ‘성균관 우등생 우대’ 제도도 있었으며, 직무 수행 중인 관료에게도 승진시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이경숙, 2018: 25-36).

사실 한국은 유교(儒敎)의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능력주의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입신양명은 유교의 최초 경전인 효경(孝經)에서 유래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담고 있다. 다만 원래는 부모를 높이는 효도의 의미로 입신양명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세주의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유교의 입신양명 가치도 시험이라는 유

일한 통로를 통해 그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시험은 유교라는 거대한 사상을 양반 및 지도자들에게 주입하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근현대의 대학입학 연합고사(1954년), 국가고사(1962년), 예비고사(1969년), 학력고사(1982년), 수학능력시험(1994-현재)은 이런 한국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로 능력주의에 있어서 시험은 거대한 힘의 공급처 및 도구다. 시험은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류, 선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력은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여지고, 불평등 해소의 방법으로 대학입시에 집중하는 일이 벌어진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대학입시는 불평등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Scholastic Achievement Test)의 탄생배경도 이와 비슷하다. 하버드대학 총장이었던 코넬트는 입학생들의 배경이 아닌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여부를 판단하길 원했다. 소위 명문 출신의 배경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였다(Sandel, 함규진 역, 2020: 249-251).

이렇듯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시험은 능력주의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시험의 의도는 불평등이 아니다. 하지만 혈통이 아닌 학습능력을 통해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그래서 사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능력주의는 계층 간 이동성의 가능성 ‘만’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선별된 수재들에게는 칭송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실패감과 모멸감을 얻는다(Sandel, 함규진 역, 2020: 255).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시험이 교육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와 내용을 보면 ‘학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를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다. 시험은 오직 인간의 인지적 면, 그 중에서도 국소적인 부분만을 필요로 한다.

4. 개인주의와 성과주의

시험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능력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층 이동의 열망은 학생들을 시험에 집중하게 한다. 앞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로 인한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의 모습은 교육 안에서도 그 모습을 여실히 보인다.

시험은 학생들을 경쟁의 장에 내놓는다. 경쟁 속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철저한 개인이며 타자는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개인은 타자를 도와줄 수 없고, 자신 또한 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건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경쟁이 아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자아실현만이 개인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 이는 사회의 모습에서 언급했던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모습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가치는 학생을 둘러싼 타자는 물론, 종교, 정치, 역사적인 맥락의 의미를 지워버린다. 자신

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의미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 버린다. 이것이 테일러가 말한 현대사회의 불안 요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삶의 의미 상실”이다(Taylor, 송영배 역, 2013: 13, 21).

개인의 능력 개발에 집중된 능력주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있는 것과 연결시키는데 방해하는 것을 넘어,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 외에는 의미가 없어진다. 만약 이러한 유일한 의미인 시험에서 성적이 낮게 나온다면 학생들의 삶에 남은 의미가 없어진다. 2020년 기준, 지난 8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63872>, 검색일 2022년 1월 7일). 죽음의 유일한 원인을 시험에 의한 성적비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삶의 의미 상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성과주의는 학생들의 이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을 생산성에 쏟아 붓는 것과 같이, 교육에서는 학습에 학생의 시간을 쏟아 붓는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조사한 평일 여가 시간은 3시간 이하가 65.4%에 이르고, 10명 중 4명은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갖는다. 남학생들의 경우 79.4%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고등학생 10명 중 5명(45.9%)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며, 초등부터 고등까지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1815, 검색일 2022년 2월 10일).²

학생들은 쉴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학습을 할 뿐이다. 한병철은 이러한 상태를 활동과잉이라 칭한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힘이 없다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성찰하는 “돌이켜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53). 학생들에게는 삶의 여백이 없다.

5. 인지적 학습 중심으로 제외된 몸

능력주의는 ‘지능+노력=능력’이라는 도식으로 표현된다. 이 도식이 포함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평가의 목적’과 ‘사라져버린 몸’이다. 먼저 평가의 목적을 보도록 하자.

능력주의에서 시험은 지능 측정(수학 능력)이 그 첫 번째 목표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선별(select)에 있다. 사실 이 부분은 평가의 오래된 관습 중 하나다. 선별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가

2) “2020 청소년 통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르치는 내용의 어떤 개념을 잘 알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 사이의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시험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평가는 학생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거스키(Thomas R. Guskey)는 ‘등급매기기(grading)’를 위한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서열화를 위한 시험에서 모든 학생들이 잘 풀이하는 문제는 필요가 없어진다(Guskey, 2011, 17).

이와 같이 선별을 위한 시험의 대부분은 학생의 지적(知的)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의 육체적 능력은 도외시한다. 그래서 소위 예체능 전공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풀이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단순한 유형분석 능력만을 훈련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교육에서 몸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통전적, 전인적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과 방법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의 내용에 전인적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는 교육이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육의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사랑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사가 아무리 전인적 교육을 한다고 말을 한들, 교육의 내용이 몸을 포함하지 않고, 나아가 평가에서 몸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제외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적 가치는 주요교과라는 말과 끊임없는 시험으로 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반면, 육체적 가치는 영 교육과정(null-curriculum)이 되어 즉, 배제된 교육과정이 되어 가치의 중요성에서 멀어진다.

이와 같이 ‘사라진 몸’은 사회적 현상에서 살펴봤던 ‘어셈블리 라인’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 어셈블리 라인이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분리했던 것처럼, 교육 또한 그렇다. 교육이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학생들은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한 육체노동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다. 교육은 잠재적으로 육체노동을 터부시하고 있다.

6.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

더 심각한 문제는 능력주의가 제시한 이상, 계층 간 이동도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학력과 소득에 따른 지역 분리, 학교 분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상위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생 분포를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중 상위 30개교 중 특목고가 15개교(528명), 자사고가 10개교(373명), 일반고가 6개교(124명)다. 상

위 30개교 중 특목고와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80.6%다. 지역 분리 또한 일어난다. 위에 나타난 일반고 6개교 중 서울 강남(3개교: 63명)과 목동(1개교: 17명) 소재가 4개교다. 일반고 합격생 중 강남만 보더라도 50% 이상이 된다(EBS 다큐프라임, “대학입시의 진실: 5부 교육 불평등 연대기”, 2017). 이는 최근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봐도 대동소이하다. 서울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22개교이다. 이 중 일반고는 3개 뿐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3&aid=0003525505>. 검색일 2022년 1월 7일).

미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력에 따라 이웃을 분리하는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력에 따른 이웃 분리는 지역 분리로 이어진다. 이는 응당 “계급에 근거한 학교의 차별”로 전이된다(Putnam, 정태식 역, 2016: 61-63).

이러한 사실은 수치로 접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체감한다. 다만 능력주의의 합리화로 그 불평등의 무게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따름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다룬 것 같이 소득에 따른 분리는 지역, 학교의 분리로 전이되는 것을 볼 때, 능력주의의 이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신념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개인의 몫이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출발선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같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 또한 소유하게 된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자원을 맞본다.

요즘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한 환경,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에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접하게 되는 정보까지도 다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더 많은 기술,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찾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Putnam, 정태식 역, 2016: 306)

심한 경우, 서두에 언급했던 미국의 입시부정 기사와 같이 특권층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강남의 유명강사에게 돈을 주고 입학시킨 부모들도 있다. 이들은 서류조사에 의해 조작이 발견되어 입학이 취소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856_32524.html. 검색일 2022년 1월 8일). 더 나아가 미국과의 시차를 통해 SAT문제를 유출한 강사 또한 적발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7304_32524.html. 검색일 2022년 1월 8일).

지금까지 교육에 나타나는 문제들, 능력주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시험, 이에 따르는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의 폐해, 인지적 교육 중심으로 제외된 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실제적 어려움을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능력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특별히 비하된 사람의 몸이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교육적 대안의 근본적인 시작은 몸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기독교교육적 대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살펴보겠다. 그 중심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살핀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골 1:15).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기에(창 1:27) 인간이 ‘인간됨’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중 하나도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김홍전, 1986: 220). 물론 이러한 인간상은 오직 중생한 자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신자 안에 내주하심, 신자를 이끄심을 고려한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이 바라봐야 할 인간됨의 기준이자 신자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337). 이를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진학’, ‘개인주의’, ‘노동’을 다루고, 기독교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를 중심으로 ‘몸’과 ‘여백’을 다루도록 하겠다.

7.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됨과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 1:14)신 이 사건은 기독교 진리의 중심이다. 구원론과 교회론 등을 비롯하여 특별히 인간론에서도 중심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자의 삶의 “맥박”이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337). 칼케돈 신조는 이 위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 동일하신 분(그리스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시느니라.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한철하, 1976: 239).

신조에 명확히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요, 신성에 의해 사람됨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고백은 두 본성의 혼합도, 분리도 아니다.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께서 양성이 연합하여 존재하신다(한철하, 1976: 240-1). 웨스트민스터 문서들도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대요리문답은 은혜언약의 중보자를 지칭하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대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으며,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 “마리아의 형질”을 가졌다고 답한다(37문답). 39-40문답에서는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셔야 하는지를 다시 강조하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피조된 인간이 겪는 육체의 일들을 경험하셨다.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셨으며, 나사렛 시골에서 여느 아이와 같이 자라셨다. 예수님은 관념 속에 자리 잡은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했던 유대 문화권에서 태어나 그 민족의 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신 구체적인 인물이다(Wright, *홍종락 역*, 2010: 16). 마태는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열한다. 이 계보의 역사는 실제 유대인들의 역사였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 근거를 확인해주는 계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혈통적 전통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혈통적 피와 살은 구약성경 역사의 맥락을 끌어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와 근거가 되도록 하신다(Wright, *홍종락 역*, 2010: 20-44).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1:14)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천지창조를 그 시작으로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인 동시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준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다. 인간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이며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깊게 관여하길 원하시며 관여하신다(Holwerda, *류호준 역*, 2012: 25).

또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신 직업이, 대표적인 육체노동인 목수였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함께 일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³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전 성인의 삶을 육체노동으로 보내셨다. 현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수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지혜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지칭하는 모습이 이런 시대적 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막 6:2-3). ‘목수’(tekton)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를 다루는 기술인을 나타낸다고보다 예수님 당시 석공이나 건축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할 때, 석공이나 건축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목수든, 건축가든 모두 육체노동자임은 변함없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목수

3) 잘 알려졌듯이 피로마카톨릭에서는 요셉을 성자(Saint)로 추대하는 데, 그의 상징물 중 하나가 목수의 도구다.

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요셉의 직업을 가리킨다는 주장(마태 13:55)도 있다(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4).

부활은 예수님의 성육신, 특별히 몸에 대한 완성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웨스트 민스터 대 요리문답 52는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가지시고” 승천하셨으며(53문답), 지금도 부활하신 그 육체 그대로 존재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부정하지 않는다.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였으며,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다시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사유는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몸’의 개념으로 이끈다. 구약에서 ‘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바사르(בשר)’로 인간의 몸 전체를 나타내며, 인간이 “바사르를 가지고 있다(having a body)”라고 보기보다 “인간 자체가 바사르(being a body)”다. 즉, 자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자신이 몸이다. ‘루아흐(רוח)’ 또한 인간됨에 관련된 구약의 단어다. 루아흐는 바람, 입김 등의 의미를 갖는 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전인적 힘이다. 루아흐는 정신이나 영혼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까지 전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최창국, 2008: 147-9). 이처럼 구약의 몸과 인간 존재에 대한 단어들은 통전적이며 전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의 몸 개념은 좀 더 명확하다. 신약은 몸을 ‘소마’(σωμα, body)와 ‘사르크스’(σαρξ, flesh)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바울이 로마서 8:5-6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는 사르크스로 몸 자체가 죄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닌, 죄악된 행위와 결합된 육체(sinful flesh)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갈라디아서 5:16, 요한일서 2:16에서도 정욕이나 죄성과 결부된 육체를 말할 때 ‘사르크스’(flesh)를 사용한다(김광연, 2015, 6-7). 바울의 단어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터부시되는 몸이 아니라 몸이 죄의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몸 자체를 죄성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김광연, 2015, 7).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인간은 육체를 터부시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으로써,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 AD570-495)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전개했고, 이는 플라톤을 거쳐 신플라톤주의 철학이나 기독교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플라톤(Plato, AD428?-348?)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주장했고,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육체성에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이 선재하는 영혼이 인식의 주체가 되는 구도는 훗날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에게 그대로 나타난다(이정우, 2019: 20-21).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사상은 성경적 기독교론을 선포하는 칼케돈 신조를 작성할 시기에도,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분법적 구조, 특별히 육체를 비하하는 인식론적 구조는 상당히 강력했다. 그럼에도 칼케돈 신조를 포함한 신앙고백서들이 성자하나님의 완전한 인성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명백히 밝히는 바요, 여기서 교리들의 유기적 연결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은 신자들의 구원을 포함한 삶의 전반에 실존적인 실재이자 의미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의 몸 자체와 이것을 포함한 하나님 형상의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몸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요소들을 고찰할 수 있다.

8. 진로 -보냄을 위한 교육

기독교교육은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를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과 그 욕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심 또한 기독교교육이 가장 힘써야 할 과제다. 교육은 정보의 전달을 포함한,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를 중심에 뒀다. 학생들의 진로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進路)’을 생각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삶의 실존인 몸을 중요시하여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보낼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내 ‘미셔널 처치운동(Missional Church Movement)’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통찰이 있다. 이 운동에 의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교회로 세상에 ‘보냄’받는 공동체다. 불가시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며, 지역교회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김재영, 2010: 336-337).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지역이 어디인지, 자신들이 위치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순수한 복음을 들어 복음은 “문화의 옷”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Newbigin, 홍병룡 역, 2013: 272). 교회가 보냄을 위해 존재하듯이 학교 또한 보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능력주의에 물든 교육은 그동안 학생들의 ‘진로’가 아닌 ‘진학’을 그 중심에 두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진학이 학교교육의 종착지처럼 생각했다. 명문대학에 학생을 진학‘시켰다’면 그것이 학교 역할의 끝이자 열매였다. 이런 학교의 태도는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되는 사회의 능력주의 구조 속에 그대로 편입된 모습일 뿐이며, 더 나아가 능력주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를 그 중심에 뒀다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의해야 할 단어가 있다. 연구자는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데, 여기서 ‘일’을 ‘직업’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다. 일은 직업을 포함한 더 넓은, 인간이 깨어있는 동안 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교육에서 진로라는 말 자체가 직업을 고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게 사용된 것을 생각할 때, 교육 또한 일에 대한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 ‘일’에 대한 논의는 ‘(2) 일을 위한 교육’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학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각자 다르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져야 할 생각, 해야 할 ‘일’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에 맞는 학습과 활동을 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교육은 단순히 진보적 교육사관에서 비롯된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보냄을 위한 교육, 진로교육의 일환이다. 흥미로운 것은 능력주의에 의해 강조되는 개개인의 능력이 학생들의 다양성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바, 성공의 통로로서의 대학 입시가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볼 때, 능력주의는 그 자체가 가진 구조 때문에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진로교육의 수많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전제를 두고 기독교적 진로교육이 갖춰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공동체 - 타자를 위한 교육

앞서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그들의 진로를 염두하여 그들이 하게 될 일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것은 ‘타자’다. 후에 ‘교육과정’을 다룬 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의 몸은 공간 안에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 본질 중 하나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진로교육은 능력주의로 비롯된 나르시시즘에 의한 자기 폐쇄가 아닌, 이웃,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가치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개인 중심적 태도는 몸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의 정치적 시민 의식 또한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Taylor, 송영배 역, 2013: 61). 물론 이것은 주께서 주신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웃사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비엘레(André Biéler)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새로운 인간성 개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삶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것

4) ‘진로(進路)’를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 즉, ‘삶’으로 봐야 한다.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삶과 보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life)의 큰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은 속임수이며 사기성 종교의 망상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연합함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다. 믿음으로 거듭난 각 신자들은 이 몸에 연결된다. 그는 이 몸과 떨어질 수 없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보이는 교회의 유기적 특성, 연결되어 있는 것 밖에서는 불가능하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36).

비엘레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의 지체됨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전체와 “하나”로 존재한다. 이는 비가시적 교회의 보편적, 우주적 속성을 근거로 한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37). 이처럼 기독교적 진로교육의 핵심은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교육이다. 또한 순수한, 일반적인 학교교육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본질은 결코 개인적인 배움에 목표를 두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만약 개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면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한곳에 모일 필요가 없다. 교실은 개인의 정체성을 키우되, “개인과 타인을 연결하며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Postman, 2011: 67).

또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개인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과 그 결과가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허락된 자원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학생 개인을 위한 계획을 통한 은혜이며, 이는 학생 개인이 가져야 할 일종의 ‘책임’이다. 이것은 학생 개개인이 받은 바, 그것이 부모의 능력이든, 환경이든, 학생 개인의 성향이든 간에 자신의 의지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식이다. 개인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왜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있도록 하셨는가를 고민하게 한다면, 응당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의 편중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부의 편중현상은 재화(財貨)의 재분배로 해결해야 한다. 재분배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이루어진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56).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면 그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특권과 더불어 도와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토대로 이웃과 다른 피조물로부터의 분리도 불러왔다. 이는 능력주의에 의한 개인주의 또한 타락의 결과이며, 이는 기독교교육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를 중심에 둔, 보냄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공동체, 타자가 위치해야 한다.

(2) 일을 위한 교육

앞서 ‘일’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언급했다. 거기서 연구자는 ‘일’을 직업 즉, 유급노동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에 대한 협소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의다. 또한 일은 사람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정체성을 가장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일을 올바른 의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로, 현 사회의 노동 실태를 비판하는 위치를 갖는다. 적극적인 이유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민하고자 하는 의도다.

대한민국에는 ‘사계’라는 익숙한 노래가 있다. “미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라는 후렴구로 익숙한 이 노래는 재봉틀을 돌리는 여공들의 이야기다. 사계 즉, 1년 내내 계절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렸다. 계절의 변화를 경쾌하게 노래하지만 후렴의 내용이 말해주는 착잡함이 공존하는 민중가요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일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성과 상관없이, 일은 삶의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경제의 생산성 극대화를 부추긴 능력주의는 노동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결과물의 분리를 가져왔다. 어셈블리 라인과 같이 노동자는 결과물과 상관없다. 단순한 작업은, 예를 들어 볼트만 조인다든지, 재봉틀만 돌리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렇게 전체과정을 통제하는 사람과 단순한 노동만을 하는 사람의 분리를 아니말 라보란스(Animal laborans)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아니말 라보란스는 “일하는 동물” 즉, 짐승처럼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인간이다. 반면 호모 파베르는 아니말 라보란스의 위에 위치하며 “물질적 노동과 행위를 판단”하는 인간이다(Sennett, 김홍식 역, 2016: 21-22). 하지만 이런 분리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왜곡하여 폄하시킨다.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구분은 ‘일’자체의 가치를 가리고 인간의 노동 자체를 시장에 내놓는 시장경제의 노동시장을 합리화할 뿐이다. 시장에 의한 노동 가치 부여는 많은 돈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며, 적은 돈을 받는 일은 좋지 못한 일이라는 도식 또한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상으로만 본다면 육아노동은 일이 아니다. 쉴레(Dorothee Sölle)는 이를 이데올로기로 표현한다.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돈을 생각한다. 노동이 삶을 유지하고 풍부하게 하고 충만케 한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노동을 급료와 관련지으며 경제적 소득에 따라 평가한다.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만큼 노동의 의미는 공허해진다. 우리는 노동시장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품으로 노동을 축소시킨다(Sölle, 박경미역, 2019: 109).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과 그가 고용한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은…과 같으니”라고 비유하시며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여준다(마 20:1).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포도원 주인이 각각 다른 시간에 고용한 일꾼들에게 샅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포도원에 찾아온 일꾼은 시간에 따라 오전 일찍(2절), 정오와 오후 중반(3절), 오후 늦게(6절)로 나뉜다. 특별히 오후 늦게 온 일꾼들은 자신들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오후 늦게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을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다. 그것도 마지막에 합류한 일꾼들부터 ‘먼저’ 샅을 지불한다(8절). 당연히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을 했다(12절). 사실 능력주의 문화 안에 있는 현대인들은 이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는 일한 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은 보상의 크고 작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는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와 결을 같이 한다(France, 2007: 748). 하나님 나라는 받는 보상으로 일의 가치,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포도원 주인은 논리 또한 반박할 수 없다.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유가 노조와 경영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Carson, 1984: 427-428).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이 제시하는 원리를 받아들이더라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에게 공감하게 되는 것은 현대가 그만큼 능력주의 문화에 잠긴 것을 반증한다는 데 있다.⁵⁾(가스펠서브, 2018: 1190).

그렇다면 일에 대한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여기서 장인(匠人)개념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다. 어떤 물건(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을 알고, 참여한다면 그는 장인정신 아래 있다. 장인은 전인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육체의 인지적, 육체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인간 존재는 아니말 라보란스와 호모 파베르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일을 하는 인간은 ‘왜’(호모 파베르)와 ‘어떻게’(아니말 라보란스)를 함께 질문하며, 해야하는 통합적 존재다. 만약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자에 의해 목적(왜)이

5) 첨언하자면, 연구자가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보상 자체를 터부시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화로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급료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37)에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으로 나오는 데,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당시 숙박비를 1/20 데나리온 정도로 추정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도 앞서 포도원 일꾼들이 받은 데나리온은 부족하지 않은 정당한 금액이었다. 일을 통한 존재의 표현은 노동자가 살아가는 현실, 실존적 문제를 응당 포함해야 한다.

주어진다면 이는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을 약화하기 때문이다(Crawford, 2018: 282).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로마의 노예로 벽돌을 만들던 벽돌장인, 벽돌공들은 자신이 만든 벽돌에 라틴어로 ‘페키투’(fecit)라고 새겨 넣었다. 이 단어는 “이 일에 내가 있었노라”라는 뜻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Sennett, 김홍식 역, 2016: 213-221). 장인적 일은 전인적, 존재론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다. 일에 대한 장인적 관점은 일을 하는 사람의 육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간의 몸을 생각하게 되면 몸을 매개로 하는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 나눌 수 없다. 기독교교육은 물론 일반 교육에서도 ‘전인적 교육’이라는 주제는 수없이 나왔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불러일으킨 노동의 이분화는 사람들에게 내제되어 있던 관념론적 인간관(Hoekema, 이용중 역, 2012: 13)⁶과 결합하여 실존적인 몸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듯 기독교교육은 일과 노동을 하는 육체의 가치를 회복하여 진정한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 거대한 진로교육의 흐름 안에 일과 육체의 가치가 기독교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스며들 필요가 있다.

9. 교육과정

보통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라고 이뤄지는 수업이나 활동은 특별수업이나 강의, 특별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진로교육은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과 독립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진로교육에서 가치를 두고자 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도 가치를 두어 교과나 활동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로교육을 통한 보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몸’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를 교육과정의 중요 가치로 제시할 것이다. 몸은 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지점이며, 앞서 언급한 인지 중심 교육에서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주의에 의한 생산성의 최우선적 목표에 맞서 안식과 쉬를 드러내는 ‘여백’에 대해 살펴보고, 이 또한 중요 가치로 제시한다.

(1) 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철학의 인식론에 있어서 양대산맥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다. 합리주의는 형식 논리를 그 내적 지속성으로 갖는 데, 이는 주체가 외부인 현실세계와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Knight, 1993: 39). 경험주의 또한 자연과학적 객관주의에 그 토대를 두었지만 인간 지식의 비독립성, 가치 지향성, 인격성 등에 의해 비판받았다(김병재, 2018: 15-33).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작업도 이와 같았다. 퐁티는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를 비판하고 이를 종합하고자 했던 칸트의 철학까지도 비판한다. 역사 속에서 합리론과 경

6) 관념론적 인간론은 인간의 신체를 매우 하등한 것으로 본다. 몸은 질료이며 이는 영혼보다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관념론적 인간론 안에서 몸은 영혼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

험론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폰티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았다. 양자 모두 “객관주의적 사유라 부르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즉, 이 두 사조는 우리의 사유를 객관화된 대상에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객관화되기 전인 “근원적인 삶의 영역”을 놓치게 한다(이남인, 2020: 36-37). 이런 이유로 폰티는 합리론과 경험론도 아닌, 몸에 관심을 둔다. 폰티는 합리론과 경험론처럼 몸을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대상화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신체는 끊임없이 지각되기 때문에 … 종략 … 나의 신체는 나를 떠나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대상인가? 대상이 불변적 구조라면 그것은 조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망의 변화에서 또는 조망의 변화를 통하여 그런 것이다 … 종략 …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의 시각 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한에서 대상이다. 대상의 현존은 가능한 부재가 으레 따르기 마련인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런데 고유한 신체의 영속성은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다(Ponty, 류의근 역, 2019: 154).

이렇게 신체는 인간 자체로서의 지각이다. 폰티는 이를 “지각적 습관”으로 연결하여 인간의 지식이 암묵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말한다. 폰티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예로 든다.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통해 다른 사물을 인지하는 데, 이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손과 지팡이, 사물이 독립적이거나 어떤 논리적 순서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암묵적인 덩어리로 지각된다(Ponty, 류의근 역, 2019: 241). 이것이 습관이다.

폰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체의 운동성과 공간성 개념을 통해 몸이 세계 안에 있고 다른 대상들과 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몸이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Ponty, 류의근 역, 2019: 311-316). 인간은 몸이 아니고서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은 몸으로 환경, 주변 물질세계에 둘러 싸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인간이 느끼는 바는 그 상황을 초월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이 “그 상황 안에 있는 것”으로 감각되어 결정된다. 이는 인간의 몸이 접하는 인간 존재의 우선성 때문이다(Smith, 2016: 77-79). 몸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자 나 자신이다. 이러한 폰티의 몸철학은 1) 몸의 인식 자체로 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2) 몸의 인식이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 그리고 3)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이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성을 역설한다.

정리한 세 가지는 기독교교육의 교육과정에도 의미있는 통찰을 준다.

첫째, 폰티의 몸철학은 관념론적 인간론에 반하여 통합적이고 인격적인 인간론을 주창한다. 이를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소극적인 입장에서 기독교교육이 인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직접 감각과 활동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각과 활동이 일어나는 장(field)이 학생들의 실존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에로-존재’(Ponty, 류의근 역, 2019: 691)⁷로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영역과 장소에서 직접적인 감각과 활동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개인의 실존을 떠나 하늘에 떠다니는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자신의 영역에서 이뤄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몸의 습관이 중요하다. 몸의 인식이 자연스럽고 암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의 환경, 그를 둘러싼 거대한 흐름(이야기)이 그의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기독교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교육 공동체는 기독교의 진정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환경이 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암묵적 교육은 교훈적이지 않고 운동미학적이다. 우주관은 사상과 신념, 교리의 보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에서 작동하며 따라서 의식을 우회하는 더 완곡한 방식으로 주입된다. 아이는 똑바로 앉는 법이나 칼을 잡는 법을 배울 때-비록 그를 ‘가르치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전수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사회적 상상계,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미지,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Smith, 2016: 174-175).

이런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육화된 교육, 학생들의 습관이 되었을 때, 이는 앞서 언급한 장인(匠人)과 같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지식 자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폰티의 몸철학은 인간이 소통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힌다. 이는 앞서 ‘공동체-타자를 위한 교육’에서 말한 바와 같기에 간단한 언급만 덧붙이겠다. 폰티의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와 타자를 위해 교육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인간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난다는 데 있다.

앞선 내용과 같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사람(학생)에 대한 전인적 관점, 몸 인식을 위한 교육 환경의 암묵적인 거대한 이야기,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공학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세계-에로-존재(être-au-monde)”는 폰티 특유의 용어다. 이는 세계를 향한 인간의 실존적 초월 운동을 가리킨다. 인간이 세계-에로-존재라는 것은 세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참여하고 위탁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2) 여백에 대하여

김덕영은 한국의 성적 위주 스포츠 문화가 쉽없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만드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입시만을 위해 쉽 없이 뛰는 조그만 선수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김덕영, 2007: 34-35). 능력주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입시를 그 종착점으로 만들어냈다. 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질(質)이 좋다는 평가와 상관없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의 문제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끊임없는 훈련 말이다. 반복을 통해서 한눈에 문제 유형을 구별해야만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청소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쉴 틈이 없다. 이는 앞서 한병철이 진단한 현대사회의 피로사회, 활동과잉과 동일한 모습이 교육 안에 보이는 것이다. 학생들은 쉬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삶 속에는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여백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여백에 근거하지 않은 정신적 여백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역(逆)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몸은 안식이 필요하도록, 쉬이 필요하도록 창조되었다.

유재봉은 ‘여가를 위한 교육’을 논하며 희랍의 스킨레(schole)개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쉽’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총체적 세계를 수용하는 활동인 관조(contemplation)”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 사람들에게 ‘쉽’은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었다(유재봉, 2019: 151-154). 스킨레의 원형은 성경의 ‘안식’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안식 또한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닌, “천지를 (재)창조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가 (재)창조한 총체적 세계를 관조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롭게 힘을 얻는다(유재봉, 2019: 158). 고대 그리스의 스킨레와 그 원형으로의 안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물리적 여백의 필수성을 제공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며 공급이다.

안식은 십계명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해진다. 신명기 5장 14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일”과 “모든 육축”, “유하는 객”, “네 남종과 네 여종”이 안식하도록 명한다. 안식이 예배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남아있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타인에게 일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안식 개념은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와 더불어 문화 흐름인 생산성과 성과주의에 분명히 반대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에서 오는 모멸과 수치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학생들의 안식을 지킬 때, 우리는 현대의 문화와 다르게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대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Dawn, 전의우 역, 2005: 63-87). 이러한 반시대적 가치관은 기독교 공동체

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희년의 토지 반환 및 분배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이숙경, 2021: 599).

여기서 연구자는 더 나아가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려 한다. 능력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여백을 자율적으로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여백을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다. 이 계명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이정규, 2017: 47).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35는 다음과 같이 6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말한다.

여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의 생명이든 불법하게 취하려는 모든 경향, 사상, 목적에 저항하고, 모든 걱정을 억제하며, 모든 상황, 유혹,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 중략 … 곤경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제하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요리문답의 136문답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6계명이 금지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6계명은 그 문자적 의미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인간의 생명권에 기반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요구한다.

교육이 전인적이라면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입시와 성적 중심으로 내달리고 있는 교육은 학생들의 시간은 물론, 그들의 건강 또한 위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의 배움이 물리적으로 끊임없는 정보 공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여백으로 그 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세밀한 구성과 더불어 기관의 원칙을 통한 강제 또한 포함된다. 환자를 낮게 하려면 강제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에 물든 사회, 특히 교육 내에 있는 능력주의적 영향을 밝혀 이를 해결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능력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능력주의'는 혈통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봉건적 계층 구분을 없애려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결과 또한 능력주의로 인해 정당화되어 버렸다. 즉, 혈통이나 계층을 근본으로 했던 불평등이 이제는 개인의 능력을 그 근본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능력주의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속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의 실패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되었기에 이에 따라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모멸감을 극복하려 했고, 이는 부정적 의미의 성과주의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적인 성과주의는 시장경제의 생산성 중시와 맞물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능력주의에 의한 실패와 모멸감을 시장경제의 가치인 '돈'으로 극복하여야 했기에, 결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이 성공의 표지가 된다. 이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으로 해석되어 노동의 가치 하락을 야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몸의 가치 즉, 인간의 가치 하락까지 이어지게 된다. 사회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력'이다.

둘째, 능력주의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능력주의와 교육의 가장 큰 접촉점은 '시험'이다. 시험이 배움보다 학습을 중심으로 한 선별을 그 목표로 할 때, 능력주의는 시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사회에서의 성과주의 또한 교육 안에서 잘 드러난다. 시험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의 철저한 경쟁, 그 속에서 교육은 개인주의를 조장하며 성과 즉, 시험 결과를 올리기 위해 절대적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생들은 수많은 압박에 시달린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육'안에 속하는 수많은 영역들은 배제되고 학습만을 그 기준으로 하기에, 노동에서 몸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 같은 모습이 교육 안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된다. 교육이 시험을 통해 선별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시험이 지금처럼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교육에서 몸의 가치는 사라진다. 화이트칼라가 인정받는 세상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후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교육은 잠재적으로 육체노동을 터부시하고 있다. 나아가 능력주의가 실패한 것처럼 교육 또한 계층 간 이동을 극복하지 못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재력, 학벌이 계층의 근거가 되었고, 이 현상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능력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교육적인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연구자는 교육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의 영향이 근본적으로 이원론적 인간론에 있다고 본다. 학습만을 중시하는 시험, 그로 인한 몸의 배제가 그 근원에 있다고 보는 바, 기독교교육이 올바른 인간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간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교육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적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문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몸을 터부시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7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고, “마리아의 형질”을 가지셨다고 밝힌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몸으로 이끈다. 구약성경은 몸을 부정하지 않는다. 구약의 ‘바사르’나 ‘루아흐’를 볼 때, 몸과 인간을 이원론적 존재가 아닌 통전적이며 전인적 존재로 제시한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다. ‘소마’와 ‘사르크스’를 구분하여 죄악된 행위와 결합된 육체를 특정하는 말을 ‘사르크스’로 사용한다. 중요한 점은 몸 자체를 죄와 결부시켜 터부시하거나 정신과 떨어뜨려 이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말하는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능력주의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난 기독교교육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먼저, 기독교교육적 관점의 하나로 ‘진로’를 볼 수 있다. 능력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동안의 교육은 ‘진로’가 아닌 ‘진학’에 그 초점을 두었다. 통전적인 의미의 몸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각자 다른 인격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이 가진 능력 또한 다양하다. 학생 개개인은 각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진로를 위한 교육이 갖춰야 할 두 가지 가치는 ‘공동체’와 ‘일’이다.

능력주의가 조장했던 성과주의와 경쟁은 인간의 공동체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타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능력주의의 나르시시즘이 아닌, 이웃,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은 ‘일’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조정해야 한다. 학력을 위한 교육은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하게 바라보게끔 하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일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전인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한 장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장인적 일은 전인적, 존재론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진로교육은 인지적 교육만 중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몸을 매개로 하는 노동의 의미를 기독교적인 통합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진로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속한다. 고로 교육과정 또한 연속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잃어버린 몸’이 다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폰티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몸은 관념적이지 않고 통합적이며 실존적이다. 이러한 몸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 이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암묵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소통 또한 교육과정에서 바라봐야 할 가치로 볼 있다.

교육과정이 중요시해야 할 마지막 가치로 안식과 쉼의 가치인 여백을 제시한다. 능력주의 안에서

의 교육은 학생들을 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쉬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된다. 쉬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쉬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여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창조된 세계를 잠잠히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부족한 점과 더불어 더 자세하고 깊은 연구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이 갖춰야 하는 방향성만을 제시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그동안 이뤄진 진로교육의 흐름과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제시된 가치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좀 더 나은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몸을 중심으로 한 인간론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교육의 영역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학습 이론들은 인지적 중심 연구였다. 물론 인지적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몸과 감각에 집중하여 이뤄진 연구는 유아와 저학년 중심이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전인적 성격을 생각한다면 고학년과 중등교육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박태현 역. (2014). **개혁교의학 3**, Bavinck, Johan Herman. (1898). *Gereformeerde dogmatiek*. 서울: 부흥과개혁사.
- [Park, T. H. (2014). *Gereformeerde dogmatiek 3*.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Bavinck, Johan Herman. (1898). *Gereformeerde dogmatiek 3*. Kampen: Zalsman]
- 박성원 역. (2003).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Biéler, André.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Park, S. W. (2003). *L'humanisme social de Calvi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Trans. Biéler, André.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Genève: Labor et Fides]
- 김태환 역. (2014). **피로사회**. Byung-Chul, Han. (2010). *Müdigkeitsgesellschaft*.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T. H. (2014). *Müdigkeitsgesellschaft*. Seoul: Moonji. Trans. Byung-Chul, Han. (2010). *Müdigkeitsgesellschaft*. Berlin: Matthes & Seitz]
- 구미화 역. (2017).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Chomsky, Noam. (2015).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서울: 와이즈베리.
- [Goo, M. H. (2017).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Seoul: Wiseberry. Trans. Chomsky, Noam. (2015).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윤영호 역. (2018). **손으로, 생각하기**. Crawford, Matthew B.(2009). *Shop 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서울: 사이.
- [Yoon, Y. H. (2018). *Shop 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Seoul: Sai. Trans. Crawford, Matthew B.(2009). *Shop 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London: Penguin Publishing Group]
-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인간론**.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부흥과개혁사.
- [Lee, Y. J. (2012). *Created in God's Image*.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 류호준 역. (2012). **요한복음**. Holwerda, David E. (1992). *John*. 서울: CLC.
- [Ryou, H. J. (2012). *John*. Seoul: CLC. Trans. Holwerda, David E. (1992). *John*. Grand Rapids, Mich.: Christian Reformed Church]
- 박영철 역. (2005). **철학과 기독교교육**. Knight, George. R. (1980). *Philosophy and Education*.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 [Park, Y. C. (2005). *Philosophy and Education*. Daeje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
- Trans. Knight, George. R. (1980). *Philosophy and Education*. Berrien Springs, Mich.: Andrews Univ. Press]
- 홍병룡 역. (201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Newbig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서울: IVP.
- [Hong, B. Y. (2013).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Seoul: IVP. Trans. Newbig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London: SPCK]
- 류의근 역. (2019). **지각의 현상학**. Ponty, Maurice Merleau.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서울: (주)문학과지성사.
- [Ryu, E. G. (2019). *Phenomenology of Perception*. Seoul: Moonji. Trans. Ponty, Maurice Merleau.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Francia: Gallimard]
- 차동춘 역. (2011). **교육의 종말**. Postman, Neil. (1995). *The End of Education*. 서울: 문예출판사.
- [Cha, D. C. (2011). *The End of Education*. Seoul: Moonye. Trans. Postman, Neil. (1995). *The End of Education*. New York: Knopf]
- 정태식 역. (2016). **우리 아이들**. Putman, Robert 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서울: 페이퍼로드.
- [Jung, T. S. (2016).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eoul: Paper road. Trans. Putman, Robert 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New York: Simon & Schuster]
- 함규진 역. (2020). **공정하다는 착각**.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서울: 와이즈베리.
- [Ham, G. J. (2020). *The Tyranny of Merit*. Seoul: Wiseberry. Trans.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New York: Picador]
- 김홍식 역. (2016). **장인**. Sennett, Richard. (2008). *The Craftsman*. 서울: 21세기 북스.
- [Kim, H. S. (2016). *The Craftsman*. Seoul: Book21. Trans. Sennett, Richard. (2008). *The Craftsman*. London: Penguin Books]
- 박세혁 역. (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Smith, James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서울: IVP.
- [Park, S. H. (2016).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Seoul: IVP. Trans. Smith, James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박경미 역. (2019). **사랑과 노동**. Sölle, Dorothee. (199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서울: 분도출판사.

- [Park, K. M. (201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Seoul: Bundo. Trans. Sölle, Dorothee. (199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Hamburg: Hoffmann u. Campe]
- 송영배 역. (2013). **불안한 현대 사회**. 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서울: (주)이학사.
- [Song, Y. B. (2013). *The Malaise of Modernity*. Seoul: Ehaksa. Trans. 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Toronto: Stoddart Publishing]
- 홍종락 역. (2010). **구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Wright, Christopher J. H. (1995).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Hong, J. N. (2010).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Seoul: Scripture union. Trans. Wright, Christopher J. H. (1995).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Illinois: InterVarsity Press]
- 유강은 역. (2020). **능력주의**. Young, Michael.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서울: 이매진.
- [Yoo, K. E. (2020). *The Rise of the Meritocracy*. Seoul: Imagine Books. Trans. Young, Michael.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김광연 (2015). “기독교전통에 나타난 몸신학과 현대적 몸의 재해석,” **한국개혁신학**, 45(-). 44-65.
- [Kim, G. Y. (2015). A View on the Body Theology in Christian Tradition and Its Reinterpretation: Focus on the Meaning of Incarnation and Body in Here and Now. *Korea Reformed Theology*, 45(-). 44-65.]
- 김덕영 (2007). **입시 공화국의 종말**. 서울: 인물과사상사.
- [Kim D. Y. (2007). *The End of the Entrance Exam Republic*. Seoul: Inmul&Sasang.]
- 김재영 (2010). **하나님나라의 자유를 찾다**. 서울: DMI.
- [Kim J. Y. (2010). *Finding Freedom in the Kingdom of God*. Seoul: DMI.]
- 김홍전 (1986). **성탄절 강설**. 서울: 성약출판사.
- [Kim, H. C. (1986). *Christmas Sermons*. Seoul: SungYak]
- 유재봉 (2019). “쉽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24(3). 139-161.
- [Yoo, J. B. (2019). Education for Leisure and Excellence: An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Faith & Scholarship*, 24(3). 139-161.]
- 이경숙 (2018). **시험국민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 [Lee, K. S. (2018). *Birth of the Test Citizens*. Seoul: Puleunyeogsa.]
- 이남인 (2020).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파주: 한길사.

-
- [Lee, N. I. (2020). Husserl and Merleau-Ponty,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Paju: Han-gilsa.]
- 이숙경 (2021). “희년 정신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성취지향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0(73). 589-612.
- [Lee, S. K. (2021).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ubilee Mind - From a Critical Viewpoint on Meritocratic Individualism of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0(73). 589-612.]
- 이정우 (2019). **영혼론 입문**. 파주: (주)살림출판사.
- [Lee, J. W. (2019). *Soul Theory*. Seoul: Sallim.]
- 최창국 (2008). “몸과 기독교교육: 통전적 교육을 위한 유기체적 인식”, **성경과 신학**. 45(1). 142-181.
- [Choi, C. K. (2008). Body and Christian Education: Organismic Understanding for a Holistic Education. *Bible & Theology*, 45(1). 142-181.]
- 한철하 (1976). **古代基督教思想**.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 [Han, C. H. (1976). *Ancient Christian Thought*.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Brannan, Rick (2014). *The Lexham Textual Notes on the Bible, Lexham Bible Reference Series*. Bellingham, WA: Lexham Press.
- Carson, D. A. (1984). Matthew. In F. 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Mark, Luke*(Vol.8). Grand Rapids, MI: Zondervan.
- France, R. T. (2007). *The Gospel of Mattew*. Grand Rapids, MI: Eerdmans.
- Guskey, Thomas R. (2011). “Five Obstacles to Grading Reform.” *Jou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69(4). 16-21.
- <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prodId=348&courseId=&stepId=&lectId=10684183>.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3872>.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1815.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856_32524.html.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김병재 (은혜의 동산기독교학교)

논문초록

‘능력주의(Meritocracy)’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합리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주의는 교육에 부정적 영향력을 준다. 기독교신앙은 당대를 지배하는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대 정신의 중요한 요소인 능력주의와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교육 영역을 들여다보고 능력주의로 인해 나타난 교육의 ‘시험문화’, ‘인지적 학습 중심’, ‘개인주의’, ‘성과주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을 중심으로 한 몸을 개념을 시작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한다. ‘진로’교육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일’을 진로교육으로, ‘몸’과 ‘여백’을 교육과정 안에서 개괄적으로 다룸으로서 능력주의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지향점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본다.

주제어: 능력주의, 성육신, 몸, 기독교교육, 일, 진로교육